

종계·부화인들의 단합의 장 마련



▲ 등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



▲ 축사를 하는 이준동 회장

▲ 종계부화업 현황을 설명하는 이언종 부회장 (종계부화분과위원장)



전국종계·부화인 등반대회가 지난 11월 16일 속리산에서 100여명의 종계·부화인 및 관련 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
충북종계지부(지부장 이봉기)가 주최하고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준동 회장, 이언종 종계부화분과위원장 및 도 관계자들이 참



▲ 세심정에 올라 단체사진 촬영



▲ 종계산업 현황 등을 논의하며 뜻 깊은 산행



- ① 산행에 앞서 오랜만에 만난 종계인들이 담소를 나누었다.
- ② 이번 대회는 부부동반으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.(한국 양계TS 김윤호 사장과 부인 김점주 씨)



▲ 식사를 겸해 행운권 주첨도 있었다.



행사 후 주당 168만수를 생산할 수 있는 도원농원 (부화장) 방문

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. 종계·부화인들은 매년 상·하반기 각 지부를 돌면서 체육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자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충북종계지부에서 등반대회로 준비되었다. 본 행사는 충북종계지부를 비롯, 당진, 논산, 익산, 홍성 등 전국 종계지부가 함께하였으며, 속리산 세심정 및 법주사를 산행한 후 오찬을 하면서 종계부화산업 발전방안 논의 및 경품추첨 등을 통해 종계·부화인들의 화합의장을 마련하였다. 행사가 끝나고 종계·부화인들은 인근 미원면에 신축중인 주당 168만수 규모의 부화장인 도원농원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. 12월부터 가동 예정인 도원부화장은 국내 최초로 기둥없는 공법으로 지어진 부화장으로 $50 \times 128\text{m}^2$ 를 자랑하고 있다.

이 행사를 주최한 이봉기 지부장은 금년 종계업계가 AI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한데 대해 감사의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불황없는 안정된 종계·부화산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. 다음 대회는 당진종계지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